

Mc : 인천의정중계탑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리 말씀 드린대로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재용 위원장과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서구 제2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의원 : 네, 반갑습니다.

Mc :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는데, 안개가 많이 껴서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원 : 그래서 조금 미리 나왔습니다. 하하하

Mc : 지금 서구 제2선거구라고 제가 지역구를 말씀드렸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의원 : 서구청 주변과 서구에서 가장 큰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루원시티 구간이 제 지역구입니다.

Mc : 가정1, 2, 3동 또 연희동

의원 : 현재는 청라까지

Mc : 청라까지

의원 : 네 청라까지 제 지역구입니다.

Mc : 검암경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 : 네

Mc : 자, 이제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어요? 올해 주요 활동 목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의원 : 지난번에 제가 한번 나와서 6대 후반기 인천광역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정책 의회", "열린 의회", "책임 의회"를 표방한바 있고,

Mc : 작년 여름이었죠?

의원 : 예, 후반기 운영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의정활동에서 도출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좀 강화하고 있고, 좀 더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실천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Mc : 자 인천이 상당히 거대도시가 됐어요. 인구가 290 만 명이 되고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장방문 말씀하셨지만 의원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의제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실까? 궁금한 점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보좌관제를 계속 좀 추진해 오셨잖아요. 이게 결국 쉽지 않은 모양이군요.

의원 : 그렇죠. 현행법 하에서는 한계가 있죠. 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있고 또 지방의회 조직과 권한,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해서 매우 취약한 상태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하려면 좀 보좌관제가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좀 어렵고 지난번에 서울시의회에서도 예산까지 반영했었죠.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했고요, 우리 인천시의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 청년일자리창출 인턴쉽 운영예산 548백만 원을 편성했지만 대법원에서 역시 패소를 했죠. 그래서 집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Mc : 그러면 이게 이뤄질려면 법 개정이 이뤄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의회인사권 문제잖아요. 이게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 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이야기였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가보죠?

의원 : 그렇습니다. 지금 광역시의회, 기초시의회가 안고 있는 큰 2가지 문제가 유급 보좌관제와 인사권 독립문제, 이 문제인데 이것 역시 현행법으로는 어렵고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가 사실 빈번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전문의원의 직급 및 정원기준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 의회가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Mc : 아니 전문의원은 일이 많은데 더 가 있어야 되고

의원 : 그렇습니다. 유연한 그런 어떤...

Mc :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의원 : 현재는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도 실시 취지에 맞게끔 의장에게 인사권을 좀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이런 관계법령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Mc : 그러면 연결되는 질문이니깐 함께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대표의 한계 속에서 의회 역량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좀 시도를 하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의원 : 예, 우리 전국 17개 시도 의장협의회, 제가 몸담고 있는 17개 시도 광역시 협의회에서도 운영위원장협의회죠. 여기에서도 지금 유급보좌

관제와 인사권 독립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국회에 건의하고 있고 중앙정부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Mc : 이게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로군요.

의원 : 그렇습니다.

Mc : 앞서서 올해에 운영위원회 주요활동 목표를 말씀 해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연구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연구모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원 : 네, 지금 현재 연구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우리시의회 강병수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협동조합 연구모임"

Mc : 아 이거 중요하죠.

의원 : 네, 그리고 홍성욱 의원이 주축이 돼서 "시민생활밀착사업 연구포럼", 그 다음에 이한구 의원이 주축이 되고 있는 "녹색거버넌스 연구모임", 우리 이재병의원이 주축이 되고 있는 "사회책임조달 연구회", 이런 연구모임을 통해서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6대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Mc :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다 여기 어디든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의원 : 아 예, 뭐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눠서

Mc : 관심있는 부분에

의원 : 같이 하고 있습니다.

Mc : 그렇군요. 자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도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 : 네

Mc :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이 감사원으로부터 인사평점을 조작한 혐의로 수사의뢰가 된 상황인데 교육위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셨군요.

의원 : 예, 그렇습니다. 아~~ 25일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2차 회의를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그동안 나근형 교육감에 인사비리문제는 2004년도에도 언론에 한번 크게 이슈화 된 적이 있고요 또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었죠. 그렇지만 2010년 우리 인천시민들이 다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교육감을 하고 계신건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천시 교육청이 학력의 꼴찌, 또 청렴도의 꼴찌, 이런 부분에 대한

좋지 않은 언론에서의 논란들, 또 시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어 왔던 그런 문제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우리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인천교육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Mc : 네. 저희가 조금전 3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만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의회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죠?

의원 :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송출연을 한 적도 있는데 지금 학교회계에서 채용한 근로자는 채용한 지 2년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와 2년 초과인 무기 계약직 근로자,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어, 크게 보면 이렇게 둘로 나뉘 볼 수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건 당연한 건데 지난번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교육청 차원이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센타라는게 있습니다.

Mc : 위센타?

의원 : 예,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문제, 또 왕따 문제, 또 가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들을 상담사를 통해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세우는 이러한 부분에 까지 단기 기간제 계약자를 고용해서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재계약이 안되는 이러한 문제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왕따 문제, 성폭력문제 이런 문제들은 상담사가 상담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년 계약기간이 끝났다 해서 해고해 버리면 지속적인 관리가 안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위센터와 관련된 상담사는 꼭 장기계약, 무기계약으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위센터와 관련해서는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낸 적 있습니다.

Mc : 아, 그럼 그게 시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의원 : 예, 인제 올 새학기 3월 개학하면 이제 상담사들이 다시 계약이 돼

서 활동을 시작할건데 저희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감독을 해야죠.

Mc :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상담파트, 다 마찬가지로겠습니다만 특별히 상담파트는 어떤 연속성과 전문성이 보장이 되어 ....

의원 : 자라나는 아이들의 문제는 지속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Mc : 자 오늘 직접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원 : 네 감사합니다.

Mc : 인천의정중계탑이었습니다. 오늘은 인천시의회 구재용 운영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